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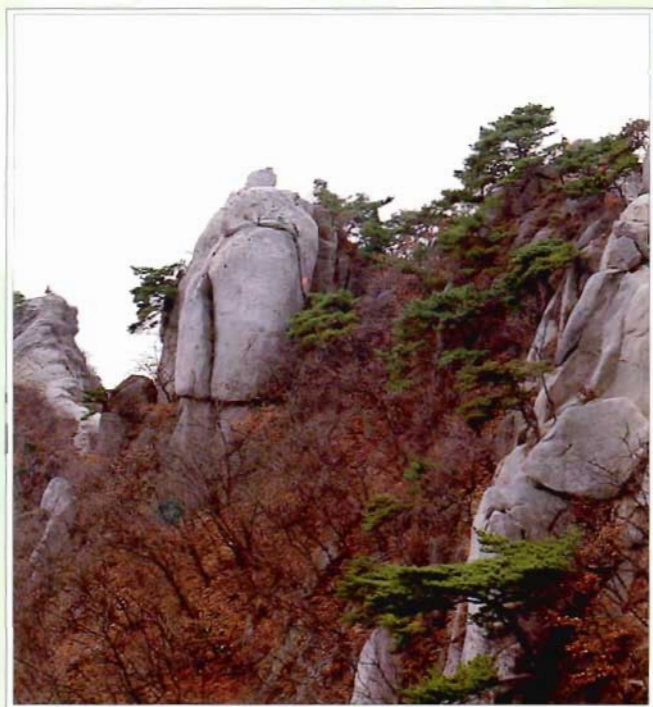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7

1998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출애굽기 · 마가복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7

1998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출애굽기 · 마가복음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지역사회 봉사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소서.
4. 김창인 원로목사님, 김성관 위임목사님, 남녀 교역자들, 당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5.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6.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7.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이 맡은 바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소서.
8.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9. 단기선교와 농어촌전도 사역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져 풍성한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소서.

고난을 넘어서는 선교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가장 귀한 양식은 고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난을 적극적으로 찾아 다니자는 고난 예찬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은 고난 속에서 가장 순결하고 아름답게 빛난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내시는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로 거듭 새로워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7월은 전도와 선교의 달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날씨의 무더움을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복음의 소식으로 충만해지는 달입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단기선교와 이달부터 시작되는 농어촌전도가 그 충만한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사역은 선교와 전도를 떠나는 팀들의 몫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가정과 구역들에서 성실한 예배를 드리며 뜨겁게 기도로 지원하고 참여할 때에야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을 위한 일로 세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선교와 농어촌전도는 바로 우리들 자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겸손한 기도와 구역식구들의 눈물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구역이 고난을 떨치고 선교와 전도의 출발점으로 거듭나는 7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임목사 김성관

충현의 만나

1998년 7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마가복음 서문

마가복음은 “요한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막 14:51; 행 12:25, 13:5, 13, 15:36-39; 골 4:10; 몬 24; 딤후 4:11; 벧전 5:13). 마가는 이방인인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막 10:45).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로 카타콤에서 순교하는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확신시켜서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도록 무장시키는 데 기록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알리기 위해 열여덟 가지의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유뒤스”(‘즉시’라는 부사), “카이”(‘그리고’라는 접속사)라는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즉 마가복음은 목표를 향해 숨가쁘게 달리고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시는 여호와와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매우 간결하게 기록(가장 짧은 복음서)하면서도, 사건 중심으로 긴장감 있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생으로 등장하기 보다는 “종”으로, “부지런히 일하시는 메시아”로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 약 1/3 이상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앞에 하루 빨리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마가의 긴박한 심정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내용을 “섬김과 헌신, 그리고 승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10

장은 “메시아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1-15장은 “메시아의 희생적인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16장은 “메시아의 최종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고난받는 여호와와 종”이신 예수님에 대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는 “참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배워서 “종”으로서 살아야 합니다(10:45, 11:29).

내용 흐름

1:1-10:52 종의 섬김

- 1:1-13 서언 :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준비
- 1:14-6:30 갈릴리 전도 사역
- 6:31-9:50 갈릴리에서 물러나심
- 10:1-52 베뢰아 전도 사역

11:1-15:47 종의 희생적인 헌신

- 11:1-11 예루살렘 입성
- 11:12-19 성전 정결 사역
- 11:20-12:44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 13:1-37 감람산 강화
- 14:1-15:47 고난받는 종

16:1-20 종의 최종 승리

- 16:1-13 부활하신 주님을 뵈기까지
- 16:14-20 위임명령과 승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깎아 만들라 …’(34:1)

본 장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파기되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관계(32장)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33장) 다시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 단절의 원인이었던 죄악을 도말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했으며, 깨트려진 언약의 두 돌비를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심으로 온전히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1-26절). 한편 하나님께서 두번째 만들게 하신 언약판은 새 것이었지만 언약의 내용은 이전의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앞서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셨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언약의 내용마저 바꾸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8-10절) 이방인과의 언약은 엄히 금하셨습니다(11-16절). 나아가 23장 10-19절에 이미 언급된 3대 절기에 관한 말씀을 재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영원히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소망없는 우리들이었지만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34:28)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결정에 따라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내용을 두 돌비에 새겼던(10-28절) 모세는 이제 그 돌비를 가지고 하산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하산하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낀 사실(29-30절)과 모세가 그 두려움을 제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재선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31, 32절). 그리고 그 후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기도할 때 외에는 항상 백성들 앞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는 내용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33-35절). 그러나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결코 모세의 인격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하며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와 같은 것을 사랑하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냄새를, 사망의 냄새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빛의 근원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광채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 여호와께 드렸으니”(35:21)

본 장에서는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34:29)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있으나,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성막 건축에 관련된 제반 사항(25장-31장)을 지시하고 그에 따른 건축 재료들의 헌납과 인력 지원을 당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본장에는 모든 사역에 앞서 지켜져야 할 안식일 규례(1-3절)와 백성들의 자원에 따라 바쳐지게 될 성막 건축용 물품들의 명세서(4-9절), 지체로운 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성막에 관계된 기구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10-19절). 나아가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29절). 마지막으로 성막 건축의 총지휘를 맡은 자들의 이름과 그들에게 필요한 은사가 주어지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30-35절). 특히 본장에서는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런 주저없이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언약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무엘이 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진리의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 기도 제목 / 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성령충만함을 허락하소서.

“...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36:2)

본 문은 출애굽기 35장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내용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즉 본문에는 성막 건축의 주역이 될 인물들이 언급되어 있고(1-2절, 35:30-35),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바친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품들이 남게 되자 바치는 일을 중단시켜야 하는 은혜스러운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3-7, 35:4-29). 한편 오홀리압과 브사렐, 그리고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곧 여호와의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은사를 지녀야 한다는 것과 둘째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2절). 즉 마음이 없는 경우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직접 수행하시는 거룩한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성막 건축자들이 일을 시작할 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성막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물이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의 결과로 성막 건축이 부족함 없이 남도록 채워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가 있었으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고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게 하소서.

▶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구속 사역에 헌신함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송 / 86장 본문 / 출 36:8-38

“...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 성막을 지었으니 ...”(36:8)

본 문에는 성막의 골격과 형태를 이루는 기물들의 제작 과정이 26장의 반복이라고 할 정도로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6장의 반복이 의미없는 반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성막 휘장과 그 위에 덮는 막, 그리고 그 위에 덮는 덮개(8-19절)와 널판, 그리고 은 받침(20-30절) 및 띠(31-34절), 성소와 지성소의 간막이, 휘장과 출입문(35-38절) 등의 제작을 순조롭게 진행해 갔습니다. 본문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에 관한 내용입니다(35, 36절). 원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인 법궤가 있는 지성소와 대제사장이 드나들며 경배와 제사를 집행할 수 있었던 성소 사이를 가로막은 것은 세속적이고 죄악된 것으로부터 거룩한 처소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죄악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이 정하여 두신 경계를 넘을 경우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죄지은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거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죄인의 중보자로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를 위해 더 이상의 피흘림이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를 이룬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죽음을 통해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막힌 장벽을 허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 ▶ 기도 제목 / 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③ 때를 따라 알맞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37:9)

궤 와 속죄소는 성막의 가장 중요하고 은밀한 곳인 지성소에 놓여 있는 성구들입니다. 이것은 둘 다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여 다스리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채를 만들어 궤 양편 고리에 꿰어두는 목적은 거룩한 법궤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리는 결정들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동행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까(4, 5절)?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인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성소의 핵심 기구입니다. 속죄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인 속죄소를 법궤 위에 두심으로 자기 앞에 나아오는 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룹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던 천사들인데 여기서 속죄소를 보호함으로써 속죄소가 바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룹들과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보좌에 나아가서 그분의 구속 사역이 드러나 있는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6, 7절).

불빛이 항상 정결하도록 하기 위해 기구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말쑥을 잘 깨닫기 위해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지금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베루신 구속 사역을 매일 묵상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성막 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낫아더라.” (38:20)

성막 올라리는 동쪽으로 난 문 외에는 사방이 모두 세마포로 둘러져 있습니다. 화려한 문을 통해 들어가면 뜰 안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성막과 동편문 사이에 위치해서 피흘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번제단의 빨은 속죄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셨으며 그 능력으로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1, 2절). 제사장들은 자신이 거룩하지 않다는 사실을 물두멍에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물로 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나에게 적용시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아직도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8절).

성막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내었습니다. 나와 교회, 가정은 어떻게 구별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교회나 가정 교육이 세상의 교육 방법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9절)? 성막은 세마포로 둘러져 있어서 성막이 거룩함을 보여 줍니다만 동편에 있는 유일한 문은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나아오는 자들을 위해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구원을 주실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깨닫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을 위해 교회도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18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이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38:21)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드린 물품은 금, 은, 놋만 하여도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임재하신 곳이 이처럼 소중한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 은, 놋은 주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게 하신 물품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내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숫자에 들었다는 것으로써, 영적 특권을 소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인준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호와와 군대가 된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 특권은 먼저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고 나서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군사로써 영적인 전투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생활 속에서 육체적인 만족만을 맛보려는 생각과 싸워 주의 뜻에 굴복하고 있습니까(26절)? 내 가정과 교회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치나 낭비 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재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21절)? 또 내 주위의 동역자들의 힘을 과소 평가하거나 뜻이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따로따로 일하므로 막대한 경제적, 인적 자원을 낭비하는 부분은 없을까요(22, 23절)?

속전은 빈부의 구별없이 똑같이 은 반세겔씩 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25, 26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이 주신 것들을 필요한 곳에 쓰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9:5)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구별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 옷은 주께서 임재하신 성막에 꼭 어울리는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평상복과는 구별된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 옷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입혀 주신 피 뿌린 옷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 없이 내 열심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까(1절)? 제사장의 옷이 화려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스도께서 영화로우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이옷을 입어야 봉사할 수 있습니다(2-5절).

책임을 상징하는 견대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를 단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제사장을 통해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선 12지파의 모습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아래 하나님 앞에서 있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와 탄원을 통해 교회를 영영히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자기 백성을 힘있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일은 없습니까(6, 7절)?

성전을 만드는 데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다양한 재주와 은사가 필요함을 보여 줍니다. 다른 사람의 다양한 재주와 은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구별되이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39:43)

성막의 기구들이나 아론의 자손들은 그 자체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께 속하고 구별된 것을 기름부어 나타냈습니다.

성막 전체는 오직 여호와께만 속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 기름은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었으며 주님의 일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내 개인 일에 이용하지는 않습니까(9-11절)?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자연인 그대로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름부음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 직을 감당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아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13절)? 성막의 기구들은 각각 따로 만들었으나 이제 함께 놓여져 성막의 모양을 전체적으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의 연합이 있습니까? 또 연합하기를 얼마나 원하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영영히 제사장이 됩니다. 모든 일이 잘되어 갈 때만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에 기초를 두고 신앙 생활을 합시다(15절).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맡겨진 직분을 거룩하게 감당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1:3)

하 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서 보낸 주의 사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는데 그것은 교만하고 완악한 심령을 회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교만으로 높아진 마음과 열등감으로 골짜기같이 굽어진 마음이 평탄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오실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이 없는 안일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광야에 거하며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때로는 강하게 죄를 책망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영혼들이 죄악으로 본래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도 그들의 교만과 열등감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 없어도 잘산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 나 같은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자책에 시달리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교만과 열등감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영혼들의 심령을 예비시키는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1:15)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돌아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 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들어가는 나라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있게 선포되어지는 아주 힘있게 이 땅에서도 전개되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있는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셔서 영혼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희망없이 버려졌던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참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습니다(32절).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죄와 질병과 귀신의 세력에 눌리고 포로된 자들이 실제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고침과 자유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민족과 세계에, 많은 눌린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눌리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새 소망을 주는 나라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눌린 자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소망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1:35)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명성은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큰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홀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셔야 될 일이 많았고 늦게까지 일하셨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귀하게 여기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셔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찾는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오히려 관심을 보이신 것은 그들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38절). 또한 당신께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복음 전파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직장가 가정의 일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새벽에 주님과 교제하는 일,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기도와 전도에 힘쓰셨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전도와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 (2:5)

만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다르게 권세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였습니다.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집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우고 간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집 안에는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중풍병자와 그를 들것에 실어온 친구들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상식에서 벗어난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곳에 들것을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지붕 위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드디어 지붕을 뜯기 시작하였습니다. 집 안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지붕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잠시 하시던 말씀을 중단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아마 그들이 상식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온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전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어려움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고 가는 진정한 믿음을 주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2:17)

세리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무리가 예수님께 떡을 얻어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풍요롭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형편으로 보아 사람들은 세리 레위를 부당하게 동족의 세금을 착취하는 악한 자라고 혹평하고 죄인 취급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세리들의 풍족한 삶을 은근히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식민통치를 받는 동족에게 세금을 지나치게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당국에 세금을 전달하고 남은 차액을 착복하는 형태로 재산을 모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한편 그들은 놀라운 재력 때문에 시기의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세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가족들을 돌보며 풍족한 경제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현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국의 해방이라는 이상을 위해서 살지만, 결국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열심당원들보다 훨씬 현실 적응력이 있는 사람들로 평가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이 필요한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세리 레위는 우리의 이웃에도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이웃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3:11)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길을 내기 위하여 제자들이 이삭을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제자들이 했다고 시비를 겁니다. 3장에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이 날 역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들이 헤롯당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의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가시자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소문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무지는 오히려 시기와 질투, 그리고 위협으로 바뀌어 버립니다(2, 6절).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참된 쉼을 얻는 날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 날에 손마른 사람은 육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지으신 하나님으로서 그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아온 무리들도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11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을 생활의 첫 자리에 모시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이에 열 둘을 세우셨으니 …”(3:14)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 둘을 사도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들 사도들의 사명이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열 두 사도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르심에 대하여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면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달리 말하자면 왜 부르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열 두 사도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십니다. 이번에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꾀방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사시는 분입니다. 성령에 따라 가르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꾀방하는 것은 성령을 꾀방하는 결과가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4:3)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씨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밭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씨는 똑같은 씨입니다. 그러나 씨가 뿌려진 곳은 각각 다른 네 곳입니다.

뿌려진 씨는 오직 좋은 땅에서만 자라고 무성해져서 결실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핍박에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리운 씨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결실한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좋은 땅을 빼놓고 세 곳의 밭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씨는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씨가 자랄 수 없는 길가이거나 돌이 있거나 가시떨기가 있는 밭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길가에 뿌리운 것은 말씀에 관심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사람입니다. 돌밭에 뿌리운 것은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포기해 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운 것은 믿음이 있지만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신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현지인 개척교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4:23)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전부 ‘씨’와 연관된 비유입니다. 첫번째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4:1-20). 이 비유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는 비유입니다(26-29절).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뿌려진 씨는 그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자라납니다(27절). 그리고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28절).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사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입니다(30-33절). 씨가 처음에는 보잘 것 없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아주 크게 자랍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도록 영향력을 줍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과 위대성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성취되며, 그리고 그 확장성과 위대성, 그리고 영향력은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복음의 씨는 위대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소서. ② 안식령 선교사(수리남)가 진행하는 인디안 선교에 필요한 교회와 진료소를 건축하게 하소서.

“...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4:35)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신 후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안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였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굳히 주무십니다. 제자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또 다시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폭풍을 잔잔케 하는 사건은 이미 시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시 65:7, 89:9, 107:23-32).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신 예수님의 제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실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은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없는 행동을 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확신하고 담대히 나가게 하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가 진행하는 성경공부를 통해 현지인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5:8)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귀신의 초자연적인 힘에 사로잡혀 쇠사슬도 무력하게 하고, 밤낮 괴성을 지르며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야말로 마귀를 정복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심을 보여 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약 2:19). 결국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귀신들은 물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약 4:7). 예수님은 귀신들을 방목되던 2천 마리의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서 바다로 내리달아 몰살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영혼의 가치를 2천 마리의 돼지보다, 아니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각과는 달랐습니다. 한영혼이 온전케 된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재물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자신들의 성에서 떠나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단과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된 사람에게 복음의 사명을 위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이 사역은 이제 그의 백성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귀신의 권세를 멸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5:34)

예수님을 찾았던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길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고침을 받았던 여인의 기사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고통을 주위 사람들에게 버젓이 내놓고 이야기 하지도 못했습니다. 홀로 그 고통을 삭이며 살았고,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받고, 또한 그가 가진 재물도 많이 허비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세상의 의원들로 인해 도리어 그 병이 중하여졌다고 밝혀 줍니다(26절). 그러나 이 여인에게 소망의 소식이 들렸는데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녀에게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롬 10:13, 14). 물론 그 여인의 믿음대로 혈루(血淚)의 근원은 말랐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인을 찾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칭찬은 여인의 믿음에 관한 칭찬이었습니다. 자리에 가만히 앉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약 2:14, 17). 우리들은 신앙 생활을 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할 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일대일의 인격적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이 여인이 얻게 된 구원의 주체가 여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얻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엡 2:8).

믿음의 선물로 능력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가 원주민 선교에 전념할 수 있게 하소서.

“... 소녀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5:41)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자시라는 것을 아이로의 딸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적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자 이시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죽음의 권세까지도 정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십니다.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살려달라는 전갈을 받고 아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중에 혈루중에 시달리던 여인을 고치시고 아이로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의 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하는 식솔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36절)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죽은 소녀를 보시고서도, 그 가정의 사람들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셨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39절)는 것입니다. 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시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을 향해 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요 11:25-26).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소녀아 일어나라)”이라고 말씀하실 때 소녀는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죽음의 권세가 무릎을 꿇는 순간입니다. 이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캄보디아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6:7)

예 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행 1:8)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능력을 더하여 보내셨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더하여 보내셨습니다(7절).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나설 때 주님께서 결코 우리들을 그냥 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히실 것입니다(눅 10:17; 마 7:22). 전도자들은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야 하고 주님의 방법을 좇아야 합니다. 전도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전대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간에 그 형편에 자족할 줄 알며, 풍부에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가져야 할 것(빌 4:11-12)을 의미합니다. 전도는 정해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전도자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전도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 기도 제목 / ① 전도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떡을 먹은 남자가 오천 명이었던라』(6:44)

예 수님께서는 무리들의 영적인 문제에 주된 관심을 가지시고, 저들의 구원에 초점을 맞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도 결코 등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자 장정만 오천 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육을 아울러 채우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보여 주십니다.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면 예수님은 문제의 근본도 알고 계셨으며, 문제의 해결 방법도 알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요 6:6). 다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37절).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을 향한 제자들의 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나온 무리들은 예수님의 휴식 시간과 기도하실 시간조차도 침범했던 무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물리치지도 않으시고 영육간에 풍성한 것으로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이 구해온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베푸시는 주님의 이 이적이야말로 주님만이 해결자시요, 구원자이심을 보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누어 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백명씩 혹은 오십명씩 무리지어 앉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열 두 광주리나 남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릴 몫입니다.

이적의 주체는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사역을 통해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소서.

“...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7:6)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자 소문이 온 지방에 퍼졌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 왔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좋지 못한 편견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당시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반드시 손을 씻고 먹었으며,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고 먹는 전통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자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경에 기록된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구전 율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삶의 세세한 부분은 구전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유명한 랍비들이 고대 전승을 중심으로 세세한 생활 규칙들을 정비해 놓고 이를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율법의 목적과 정신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태도가 혹 바리새인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전통과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진짜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놓쳤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보다는 말씀이,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소서. ② 복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7:29)

예 수님께서 두로 지방의 한 집에 있을 때에 수로보니제 여인 하나가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간청합니다. “내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반면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였는데 예수님께서도 일단은 개 취급하듯 대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여자가 한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주여 옹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딸을 치료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구하는 자가 맞본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구원에 있어서 특권이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는 전통적인 아집과 그릇된 주의(主義)로 구원에서 멀어졌고 오히려 개 취급당하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함으로써 능력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신앙의 열의를 테스트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귀중히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보편적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구하는 자가 먼저 받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특권 의식이 아니라 겸손히 긍휼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특권 의식보다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② 남북이 피 흘림 없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 속히 허락하소서.

“...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느니라”(8:25)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사흘씩이나 굶어가며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굶게하여 집으로 보낸다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겼던 예수님은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무리 중에서 구해 축사하신 후 이들을 먹였습니다. 사천명을 먹이고도 무려 일곱 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적 능력을 보여 주는 사건이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1-13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다시 구합니다. 알기는커녕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누룩”을 언급하였는데 제자들은 먹는 것 차원에서 이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 보지도 못한 것처럼 감사는커녕 시험성 간구만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잘 알지 못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소경인 것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벳세다에서 소경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침을 발라가며, 눈에 안수하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소경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받은 은혜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② 낙도와 오지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8:29)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들은 대로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해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심각하고도 진실 되게 대답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고백에 따라 신앙의 태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한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등은 예수님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는 사람 정도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 때문에 나중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정치적인 메시야로 이해했을 뿐 진정한 예수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결국 죽을 것이라고 말하자 베드로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諫)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이해해야 바른 신앙태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다시 살아 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 사역을 다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적당하게 고집하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고백에서 비롯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신앙고백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소서.

“...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9:29)

예 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 남아 있던 제자들에게 큰 문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한 분이 귀신 들린 자식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쫓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 있었는데 불이나 물에 넘어지기도 하고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기도 했습니다. 이를 무 기력하게 지켜 보아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수 의 소문을 들은 후 큰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어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도저히 쫓아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아버지는 예수님께 달려와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은 후 집에 돌아오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는 믿음과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인 믿음을 위해 간구합니다.

믿음과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사명을 감당할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주소서. ②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고백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 첫째가 되고자 하면 ...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9:35)

“너 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30-32절) 제자들의 마음 한복판에는 높아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 주신 결론은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누가 큰 자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한 가운데는 큰 자 되기를 향한 욕심이 자리잡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토론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섬기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평화가 깃드는 법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와 사역 보고를 합니다.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태도가 제자답지 못한 편협한 태도인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포용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진리 안에서 섬기고 포용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7월에도 함께 하신 주님, 8월에도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구역예배공과

☀ 구역예배순서 ☀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욥기 서문

욥기는 자신의 부와 가족, 그리고 건강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왜?'라는 질문과 씨름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전체는 '논쟁과 변론'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사탄 간의 천상의 변론과 욥과 그 친구들 간의 지상의 변론이 욥기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변론을 통한 '고난의 원인과 해법'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 아니라 인간의 변론과 질문을 넘어서서 엄연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데에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욥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결국 욥의 참담한 고통과 그와 그 친구들의 신학적인 변론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철저히 왜소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나서 욥은 자신의 모든 말을 거두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 거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되는 은총을 입습니다.

욥기는 저자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그러나 저자가 인간의 고난에 대하여 매우 깊은 묵상을 해온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책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과 율법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과 욥이 일백세 이상을 장수했다는 사실, 또한 욥이 가정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족장으로 등장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책의 기록 연대는 기원전 1800년대 이전의 '족장시대'로 추정됩니다.

욥기의 주요 내용

1:1-2:13 머리말

욥의 신실함과 그가 받은 두 가지 시험

3:1-42:6 본론

3:1-26 욥의 애가

4:1-14:22 첫번째 변론

엘리바스-욥-빌닷-욥-소발-욥

15:1-21:34 두번째 변론

엘리바스-욥-빌닷-욥-소발-욥

22:1-31:40 세번째 변론

엘리바스-욥-빌닷-욥

32:1-37:24 엘리후의 연설

38:1-42:6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욥-하나님-욥

42:7-17 맺음말

욥의 회복

제 1 과

욥기(1)

고 난

찬 송 / 463장

읽을 말씀 / 1:1-3:26

공부할 말씀 / 1:20-2:10

함께 읽기

욥기 초두에서부터 욥은 도시와 농촌에 걸쳐 두루 광대한 땅을 소유한 부자로 등장합니다(참조 29:7-10). 그는 또한 구약성경에서 의로운 부자들이 누렸던 명성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참조 겔 14:14). 이 땅에서 욥을 해칠 만한 요소들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욥의 이야기가 불현듯 천상의 상황으로 옮겨지면서 욥을 둘러싼 고통스런 사건들이 급박하게 시작됩니다. 천상의 회의석상(참조 왕상 22:19-23, 시편 82편 등)에서 사단은 하나님을 상대로 욥을 고소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단지 번영을 보장받기 때문이라는 점을 드러냄으로 욥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려는 것입니다. 사단은 시험자(대상 21:1)요 고소자(숙 3:1)로 자신의 비열한 속성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의 의와 신실함으로 보장되는 욥의 신앙은 이제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아내는 저주스런 말을 퍼붓습니다(2:9). 이어서 세

친구가 그를 방문하지만 그들 역시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급기야 욥은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통해 주어질 안식을 그리워하기에 이릅니다(3:11-19).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1:1-5에서 묘사된 욥의 행복의 극치와 1:13-19에 이르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은 천국과 지옥의 대비를 연상시킵니다. 하루 아침에 당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 앞에서 욥이 취한 태도를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적어 보십시오.

1) 그가 취한 태도('동사'들을 중심으로 20절)

2) 그의 고백(21절)

3) 욥에 대한 욥기서의 평가(22절)

2. 사단이 욥을 상대로 다시 한번 참소하는 내용과 그 결과로 욥의 몸에 임한 고난은 무엇입니까?(4-5절, 7-8절)

3. 욥의 심장에 꽃히는 또하나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9절)

4. 가장 가깝고, 의심없이 신뢰해온 사람인 아내를 통해 주어진 고난 앞에서 욥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10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욥의 아내에 대한 우리들의 정죄는 대체로 단순하고 일방적입니다. '못된 여자!' 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욥의 고난은 아내의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도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은 것입니다. 병든 남자는 다름아닌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욥을 지극히 사랑해 온 하나뿐인 아내였습니다. 따라서 2:9의 핵심은 이런 욥의 아내가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할 정도로 고난이기가 막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아내의 말은 비극적인 실수였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최종적인 고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고난으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어떠합니까?
2. 욥에게 임한 고난은 인간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의 극치, 고난의 모든 것을 보여 줍니다. 재산의 상실, 자녀의 죽음, 아내의 돌아섬, 육신의 질병, 친구들의 비난 등 모든 종류의 고난이 욥 한 사람을 둘러싸고 집중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는 자신의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 받아들이고자 힘썼습니다. 최근 한국인 대다수는 극심한 경제적, 심리적 위축으로 고난의 문에 들어서 있습니다. 벌써 식사를 거르는 가정들, 실직한 후 가출하여 방황하는 가장들, 맘 돌 곳이 없어서 거리를 헤매는 영혼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욥의 태도에 비추어 고난과 고난의 소식,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제 2 과

욥기(2)

나의 율음을 입증하려는 충고

찬 송 / 359장

읽을 말씀 / 4:1-14:22

공부할 말씀 / 8:1-22

함께 읽기

욥을 찾아온 세 친구는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는 욥의 한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입을 열어 욥의 마음을 바로 잡고자 나름대로 논리를 펠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의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논리 사이사이에 욥의 반론이 이어집니다. 이 첫번째의 긴 논쟁은 4:1-14:22에 걸쳐 길게 진행됩니다.

데만 사람 엘리바스는 북아라비아 사람으로서 에돔의 유명한 지혜자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렘 49:7). 그의 논리는 단 순합니다. 욥이 선한 사람인 것은 알지만 의인은 고난당하는 법이 없는데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 욥에게는 필시 고난 받을 만한 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섬겨온 욥의 순전한 믿음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모든 경우에 참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닷 역시 하나님을 옹호하고자 말을 시작했으나 엘리바스와 똑같은 결론으로 주장을 마칩니다. 끝으로 소발 역시 욥의 잘못을 들추면

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 욥은 하나님과의 변론을 통해 하나님의 판결에 자신을 맡기겠다고 걱정합니다(13:1-14:22).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 두번째 변론자는 누구입니까?(1절)
2. 빌닷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3, 5-7, 20-22절)
3. 빌닷은 욥이 겪는 재앙의 원인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4절)
4. 빌닷이 욥에게 상기시키고자 끌어오는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8-10절)
5. 빌닷이 욥에게 호소하는 또 하나의 논리는 어떤 것입니까?(11-19절)
그 논리는 한 마디로 '()에 호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빌닷이 본문 7절에서 말한 내용('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은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선호하는 매우 유명한 말로서 사업을 시작하는 집에 선물해 주는 성경구절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이 말이 욕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빌닷은 엘리바스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판정을 받고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사실(42:7-9)입니다. 이 말의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일까요? 빌닷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잘못은 바로 '민망히 여김'이 없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목자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내장이 다 흔들리시는' - 유대인들은 감정이 내장에 있다고 믿었음) 그 모습이 빌닷에게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말의 율음보다는 마음의 이해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문제 상황 속에 있는 누군가를 상대할 때, 상대방에 대한 깊은 동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죄자의 입장에 서서 그의 잘못을 들추어내기에 급급한 충고로 일관하지는 않습니까?
2. 빌닷은 자신의 신학적인 전제(고난은 반드시 죄가 있기에 생기는 것이다)와 선조들의 전통과 개인적인 경험 등에 의존하여 욕과 욕의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 전통과 경험에 근거한 '익숙한 지식'과 '편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현재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자녀, 부모, 이웃 간에는 그러한 전제와 선입견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습니까?

제 3 과

욥기(3)

고난 중에 임한 계시

찬 송 / 479장

읽을 말씀 / 15:1-31:40

공부할 말씀 / 19:13-27

함께 읽기

15장에서 3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 간에 진행된 두번째와 세번째 변론을 다룹니다. 세번째 변론(22:1-31:40)에서는 소발은 빠지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욥만 등장합니다.

두번째 변론에 나선 엘리바스는 욥의 마음의 동기들을 의심하면서 욥이 간사하고 교만하다(15:5, 7)고 지적합니다. 빌닷은 처음의 변론에서 주장했던 말과 대동소이한 말로 다시 한번 욥의 괴로움을 더해 줍니다. 그리고 소발은 욥에게 점잖게 충고하기를 악인은 결국 번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번째 변론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덧붙이지만 여전히 욥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선입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엄위와 권세를 강조함으로 욥이 불평할 자격 없음을 확증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주장과 변론의 끝에 욥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애와 양심을 돌아보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형벌을 받을 만한 죄가 자신에게 있

는지를 찾아봅니다(31장). 그리고 한가지씩 검토해 갑니다. 결혼생활과 음욕에 관하여, 말의 정직성에 관하여, 그리고 고용인 및 어려운 이웃과의 관계에 관하여 자신이 잘못했던 일이 없는가 돌아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욕이 당한 '사람들에게서 버림받는 고난'을 자세히 살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버림을 받았습니까?(13-19절)
2. 그가 당한 버림받는 고난의 극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21절)
3. 23-24절에서 말하는 바, '자신의 말이 기록되어 영영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4. 욕이 극도로 심각한 고난 속에서 발견한 역설적인 계시는 무엇이었습니까?(25-27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욥의 고난에 비교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우리 역시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알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버림받는 슬픔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러한 경험이 있으면 그때의 상황과 결과가 어떠했는지 지체들과 나누어 보십시오.
2. 욥이 버림받는 고난의 극치에서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단 12:2 및 사 26:19과 더불어 구약성경에서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만한 '부활 신앙을 통한 믿음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의 순간에 과연 욥이 부활 신앙을 얼마만큼이나 뚜렷하게 의식하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명백한 신앙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경우와 같이 욥 또한 그 자신의 문제 상황을 훌쩍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고난이 하나님의 기회'라는 유명한 말이 우리를 강력히 설득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가르침을 깨달았던 순간들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제 4 과

욥기(4)

엘리후의 변론

찬 송 / 212장

읽을 말씀 / 32:1-37:24

공부할 말씀 / 35:1-16

함께 읽기

32장에서 37장까지는 엘리후의 연설 혹은 변론을 기록합니다. 부스 사람(창 22:21 참조) 바라젤의 아들로 소개되는 그는 스스로를 연소한 자로 평하면서 겸손한 어투로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단 변론이 시작되자 참을성과 공손함을 접어두고 격렬한 주장으로 치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 휩싸인 나머지 자신이 지금 변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욥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깊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는 욥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의 다양성(33:12-14)을 지적하면서 고통도 그 중 한 가지일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34장에 이르러 그는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의 말은 참되기 그지 없는 것이나, 죄인을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초로 사단이 참소했던 내용을 반복하여서 욥이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온 것이 아닌지 의심합니다(35:1-3). 사실 엘리후

의 변론은 욱을 좀 더 꾸짖고 하나님의 크심을 좀 더 드높인 점 외에는 다른 세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엘리후가 욱을 반박하기 위해 욱의 생각과 말에서 허물을 찾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2-3절)

생각(2절) -

말(3절) -

2. 엘리후는 욱의 한탄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논리를 내세웁니까?(5-8절)

3. 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의미하므로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13-14절)고 주장하는 엘리후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9-12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엘리후가 펼치는 생각은 무척 논리가 정연해 보입니다. 그는 광대한 하늘과 높은 궁창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서 욕의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참으로 웅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에서 말하는 6-7절은 조금 서글프게 들립니다.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 이 말이 서글프게 들리는 이유는 첫째로 엘리후가 자기의 논리를 위해 하나님의 겸손하신 사랑, 우리 가운데로 낮아져서 배푸시고 돌보시는 사랑을 일부러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미워하거나 경원시키고 싶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시기를 기대하는 알팍한 심리도 생깁니다. 당신은 어떠한 십니까? 우리에게 배푸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그 마음이 어떻게 녹아져야 하겠습니까?

2. 6-7절의 엘리후의 말이 서글프게 들리는 둘째 이유는 ‘주어’를 ‘내가’가 아니가 ‘네가’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말로는 심히 아름다운 말이겠으나 그것이 남을 정죄하는 말이 될 때에는 무서운 칼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이런 종류의 비난을 들은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5 과

욥기(5)

욥의 변화와 회복

찬 송 / 406장

읽을 말씀 / 38:1-42:17

공부할 말씀 / 42:1-17

함께 읽기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길고 장황한 변론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폭풍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장엄하신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최초로 내리시는 말씀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권세로, 전지 전능하신 이의 권세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욥은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40:4)라고 대답합니다. 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갑작스럽고 극적인 변화의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욥이 하나님의 논리에 압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차적인 생각이겠으나, 무엇보다도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과 위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욥'을 상대로 직접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욥이 말한 바 자신의 신앙의 근본이 '귀'에서 '눈'으로 옮겨졌다는 고백 (42:5)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대면함'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중심으로 드러나신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욥은 자신의 마지막 대답에서 '하나님'과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합니까?

1) 하나님에 대하여(2절)

2) 자신에 대하여(3, 5, 6절)

2.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의 말들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7절, 8절 하반절)

3.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을 어떤 방식으로 용서하시고자 하십니까?(8절)

4. 욱의 놀라운 회복(10-17절)의 극적인 전환점은 무엇이었습니까?(10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하나님께서는 욱을 '내 종'이라 거듭 부르시면서, 동시에 세 친구의 말들이 욱의 정당성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세 친구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언가 허물이 있으므로 고난이 왔다'는 자신들의 짧은 신학적 지식을 변호하기 위해 고난받는 자의 처지를 비난하는 경건한 위선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혹여라도 지금 마음으로 입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판단하실지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께서는 욱을 회복시키시되, 그것을 욱과 세 친구들 간의 관계의 회복과 연결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세 친구들이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동안 욱으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 친구를 용서하시고 욱의 모든 환경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욱의 문제를 다루실 때에 '관계 회복'의 차원에서 다루셨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지고 어그러진 관계는 여전한데도 나 혼자 용서받고 나 혼자 행복한 것은 자칫 엄청난 위선일 수 있습니다. 생각나는 '깨어진 관계', '온전치 못하여 회복되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도록 요구하십니까?

MEMO

1334 MN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